화순에 실버타운 '소향원' 건립

광주 관음불교회관 물리치료실등 갖춰 6월 개원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전남지역의 첫 노인들을 위한 대규모 불교실버타운이 생긴다.

광주 관음불교회관(관장 정월곡)에서 건립하는 소향원은 오는 6월 중순 전남 화순군 춘양면 4천여평의 부지에 50여명의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원으로 문을 연다.

3동의 단층건물에 건평이 217평 규모인 소향원은 노인서비스를 위해 35평의 법당을 비롯하여 14개의 방과 50평규모의 세탁실 오락실 물리치료실 의무실 자원봉사실등 현대식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건물 내부공사까지 마친후 외부조경공사가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소향원은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으로 2년불사를 계획 중이다.

올해에는 부부가 상호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실비수준의 유료양로원과 노인요양원공사를 시작하여 내년에 설립하고, 노인전용병원도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의 수려한 공간을 이용하여 운동장 소공원을 갖춘 대규모 불교실버타운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는 평생의 원을 이루게돼 기쁘다"는 소향원 정월곡 관장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원 개원과 관련하여 "18년여를 추진해 왔다"며 "신행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중국 국청사에서 지자대사 열반 1400주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삼화사 약사전 신축기공

국내 最古 철제약사불 봉안…11월 완공

국내 최고로 추정되는 철제약사불을 모신 강원도 두타산 삼화산 약사전이 새롭게 조성된다.

삼화사(주지 원행)는 지난 19일 비룡 인허스님을 증명으로 모신 가운데 약사전 신축기공식을 봉행했다. 약사전에 봉안될 철불은 신라 효성왕 3년(739년)에 조성된 것으로 실상사 철제여래좌상보다 약 1백여년 앞선 연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2호로 지정된 삼화사 철제약사불은 높이 1m 넓이 65㎝로 비교적 작은 불상이다. 그동안 이 불상은 2평 남짓한 콘크리트 기와 전각에 봉안돼 왔었다.

원행스님은 "도둑이 철불을 훔쳐 달아나다가 화를 입는 등의 전설을 간직한 불상"이라고 소개하고 "25평 규모의 전통고건축양식의 약사전을 신축해 여법하게 모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완공 예정이다.



◇올 11월 신축 약사전에 봉안될 삼화 철제약사불.

한·중·일 천태종 공동불사 '서막'

中 국청사 지자대사 열반 1400년 법회 3국대표 참석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이 내실있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교류에 나선다.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지난 15일 중국 천태산 국청사 대웅전에서 한국의 운덕총무원장 일본 우에야마좌주 중국국청사 가명방장을 비롯한 각국의 스님,신도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대사 열반 1천4백주년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천태종 스님들의 분향으로 시작된 이날법회는 각국의 독경의식과 법어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시대는 정법이 은폐되고 불락한 오탁악세이다"며 "인류정신위기를 구제하기위한 지자대사의 일승묘법이 천태교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천태종은 중국천태종 스님들과 지난해 완공한 지자대사 의천국사 상월조사를 모신 국청사 조사당에서 법회를 열고 교세의 확립과 종풍의 선양을 다짐했다.

법회가 끝난후 한·중·일 3국의 스님들은 지난 89년부터 교류해온 것을 탐색기로 삼아 올해부터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동아시아평화와 세계인류공헌에 이바지하는 실적적인 교류로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한국천태종은 지난9일 중국북경에서 중국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을 방문하고 한중불교유대를 강화키로 했다. 이자리에서 조회장은 "중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중국스님들을 한국에 유학보내고자하니 한국천태종이 도와달라"고 말했으며 전운덕 총무원장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파생 신흥종교 75개 4월현재

종교학회서 밝혀

96년 4월 현재 한국불교의 신흥종교는 모두 7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우 소장(한국새종교연구원)은 지난 11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종교학회 춘계세미나에서 '한국불교계의 신흥종교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소장은 신흥종교의 발생기를 제1기(근세~광복 전), 제2기(광복 후~1963년·불교재산관리법시행기), 제3기(1988년·전통사찰보존법시행기~현재)로 나누어 구분하면서 제1기에는 10여개의 신흥불교단체가 발생했으나 불법연구회(현재 원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다.

제2기에서는 조계·태고 양종을 제외한 밀교계열, 법화계열, 화엄계열 등의 진각종, 한국 법화종, 총화종 등 모두 18개 종단이 등록했으며, 미륵정신회, 대동불교, 천불도 등 29개 미등록 단체를 합해 모두 50여개의 단체가 별도 법인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규정이 완화된 제3기에는 기존 종단이 다시 62개 종파로 분파됐으며, 이에 13개의 신흥불교단체가 발생해 현재 모두 75개의 불교단체가 활동중이라고 밝혔다.

이소장은 "신흥종교가 사이비종교나 저급한 종교로 잘못 인식돼 있다"고 전제하고 "대부분 신흥불교단체가 뚜렷한 층체를 갖지 못하거나 변화가 심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신노인 70% "재혼 고려치 않아"

보각스님 '노인 性의식 조사' 발표

자식의존보다 독립생활 선호 추세

별거 또는 사별해 홀로 있는 노인들 대부분은 재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혼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타인과 의논하기 보다는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혼 상대자의 선택기준은 경제적 여유와 건강, 성격 순이었다.

보각스님(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지난 14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3차 학술심포지움에서 '노인 재혼문제-性문제에 관한 의식조사' 발표를 통해 서울 거주 노인 1백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이같이 설명했다.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별거·사별중의 노인중 70.2%가 재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꼭 재혼하고 싶다는 노인은 3.8%에 불과했다. 재혼에 대한 토론대상은 친구(21.7%) 자식(16.7%) 친척(5.0%) 기타(55.0%)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혼에 대해 '자식들이 무관심하다'는 반응이 반수이상(50.6%)이었으며,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3%, 반대는 36.5%로 재혼에 대한 자식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장남동거(25.5%) 부부만 동거(21.2%) 독신(19.0%) 등 과거 장남에만 의존하던 주거행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었으며, 생활비는 자식(39.5%) 본인노력(20.5%) 연금(10.8%) 등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까지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자립형 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경전드라마 '유마경' 비디오 나왔다

불교TV 영상사업단 제작…내년 봄 2부 출시

불교TV 영상사업단이 경전 영상화 작업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7월 28일 크랭크인에 착수했던 첫 불교경전드라마 '유마경'이 비디오로 출시됐다.

모든 중생의 고통과 병을 대신 아파하며, 함께 그 번뇌를 나누는 유마의 자비심과 불이법문, 정신을 담은 작가 정찬주씨의 동명소설 〈유마경〉을 원작으로 한 이 드라마는 영화 '하얀전쟁'의 시나리오작가 오태영씨가 각색을,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원덕부장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 드라마 '유마경'의 주인공 민준역은 SBS드라마 '목소리를 낮추세요' 등서 활약해온 탤런트 이상훈씨가 맡았으며, 민준의 상대역 이욱에는 '한지붕세가족' 등 드라마와 CF모델로 활동해온 안승미씨가 캐스팅과 열연을 했다. 그밖에 지행거사역에 중견탤런트 박병호씨와 운공스님역에 박용식씨, 만해스님역에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상민PD, 만해스님 은사역은 설봉스님이 각각 맡았다.

감독을 맡은 불교TV 영상사업단 이원덕 부장은 "드라마 '유마경'은 당초 1부와 2부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었으나 후반부인 2편이 눈을 배경으로 한 장면이 대부분인데 지난해 기상여건이 여의치 않아 촬영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서 "올 겨울 나머지 촬영에 들어가 드라마를 마무리하고 내년 봄 2부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드라마 '유마경'에서 지행거사가 민준을 치료하고 있다.

목탁소리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불교TV '홍역 치루기'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대규모 행사중의 하나였던 불교TV '불교문화대제전'의 돌연취소가 불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문화대제전은 그 준비과정에서도 수차례 행사개최 여부에 대해 '한다, 못한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었고, 사실상 5월행사를 앞두고 모든 준비들이 한단계 늦게 시작된 것도 사실이다. 불교TV측은 이번 불교문화대제전의 취소이유를 영등포구청이 생활관 3천평에 대한 허가취소를 행사 개최 1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통보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할관청의 지나친 행정편의적인 행정집행도 문제는 크다. 하지만 불교TV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했다.

시설시공자와 이벤트기획회사로 구성된 불교문화대제전 후원회 대책위원회가 불교TV를 고소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는 불교TV측은 "현재 대책위원회와 의견조정중에 있으며,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같은 피해자인 만큼 영등포구청에 공동대응의 형식을 취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교TV측은 오는 가을 한·중·일 3국불교대회 개최식에 맞춰 행사를 재개할 계획임을 표명했다.

여하튼 불교문화대제전의 취소는 그 행사규모만큼이나 사회에 미칠 불교의 이미지 손상, 물질적 피해등 많은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할구청의 잘못을 명백히 밝혀내 사태를 마무리짓고, 신중한 계획추진으로 행사를 여법하게 치루는 것만이 실추된 불교TV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불교아동문학 깨달음의 세계

육바라밀 미래의 부처님을 위한 아름답고 진실한 불교동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에
참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아로 새겨줄
아름답고 진실한 6가지 불교 이야기



〈깨달음의 세계〉는 불교 아동문학가로 이름 높은 이슬기 선생님이 6바라밀에 관한 내용을 어린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 창작했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높은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의 부회장이시며 사단법인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회의 회장이신 송묵 스님께서 자상하게 감수를 해 주셔서 아동들이 아름다운 정서와 올바른 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베푸는 마음(보시 바라밀)
2 계율을 지키는 마음(지계 바라밀)
3 인내하는 마음(인욕 바라밀)
4 노력하는 마음(정진 바라밀)
5 깨끗한 마음(선정 바라밀)
6 슬기로운 마음(반야 바라밀)

· 책을 지으신 분
■ 이슬기 선생님 한국 불교아동문학회 이사
· 책을 감수해 주신 스님
■ 송묵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동원정사 주지

도서출판 하나원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6 전화 : (02) 701-2730, 2731 FAX : (02) 701-2731